Redefining MRI:
From Image to Insight

ICMRI 2026
THE 14th INTERNATIONAL CONGRESS ON MRI
& 31st ANNUAL SCIENTIFIC MEETING OF KSMRM

AUGUST 27 - 28, 2026
Grand Walkerhill Seoul, Seoul, Korea
https://icmri.ksmrm.org/2026m

KSMRM 30th Anniversary Special Session

SY15-3

"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(KSMRM)"의 발자취 (1996-2026)

Yeon Hyeon Choe

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, Korea

KSMRM 은 1996 년 11 월 16 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창설되었다. 초대회장은 가톨릭대 신경섭교수가 맡았다. 의사와 과학자, 공학자 또는 물리학자의 시너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지난 30 년간 KSMRM 은 MRI 기법과 특히 최근의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에 발맞추어 연구, 교육, 산학협력에 있어 아시아의 모범적인 MRI 학회로 성장해 왔다. 세 가지 중요한 milestone 으로서 2013 년 국제학술대회(International Congress of MRI)로 확대 개최, 2015 년 Investigative MRI 로 학술지 개간과 이후에 이어진 OSCMRM 과 공동학술지로의 진화, 2020 년 우리학회 주도로 Asian Society in Magnetic Resonance in Medicine 이 창설되어 첫 학회를 상하이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.

ICMRI 는 최대 33 개국에서 최대 1222 명이 참석한 바 있는 아시아지역 주요 MRI 학회로 자리매김하였다. 산하연구회는 2010 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현재 11 개 연구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총회원수는 604 명이다. 2019 년 이후 연구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여 연구 활성화 및 학회지 수준 제고에 힘쓰고 있다. 1998 년 자기공명영상학, 2014 년 임상자기공명영상학, 2023 년 자기공명영상의학의 세 권의 국문교과서를 편찬하였다. 1997 년 2 차 학술대회 이후 연수교육이 매년 시행되어 교육연수자는 2012 년 이후 누적 3235 명이다.

일본, 중국학회와 상호교류 심포지엄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2025 년 ISMRM Korean Chapter 를 개설하였다.

향후 AI, digital healthcare 시대에 대응하여 아시아 MRI 연구 hub 로서 MR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학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MRI 안전과 기술향상을 책임지는 물리학자, 의료진이 역할이 제도화됨으로써 학회 회원들의 위상이 제고되기를 바란다.

Keywords: KSMRM, History